

장수 RED FOOD FESTIVAL ‘최우수’ 시범사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대표 축제 육성사업 선정심사서 3년 연속 선정

장수군 대표축제 ‘RED FOOD FESTIVAL(제18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대표 축제 육성사업 선정심사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최우수축제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전북특자치도에서 2024년도 축제 현장평가와 2025년 축제 계획,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다.

장수 ‘RED FOOD FESTIVAL’은 지난해 기존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 축제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며 장수 한우와 사과와 전통적인 인기에 ‘레드푸드’라는 혁신적인 콘텐츠를 더해 축제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현대적 트렌드와의 조화를 이뤄 축제의 경쟁력을 높였다.

지난해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개최된 장수 RED FOOD FESTIVAL은 ‘빨간 맛으로의 초대’라는 슬로건 아래 레드푸드존, 레드푸드쇼, 레드푸드를 활용한 가족 요리대전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방문객들에게 오감만족의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명실상부한 축제 대표 프로그램



장수 ‘RED FOOD FESTIVAL’ 개막식 사진

램인 장수한우를 맛볼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 한우 관매장과 한우마당, 장수사과를 마음껏 고를 수 있는 사과마당은 물론 온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사과볼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붉은 빛 레드의 향연’을 선사하며 축제의 진가를 발휘했다.

이와 함께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로도 지정돼 2년간 문체부로부터 지정평가, 빅데이터분석, 축제아카데미, 컨설팅 등을 지원받으며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축제 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최우수 축제 선정은 장수군민의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 낸 값진 결과”라며 “2024년 장수 ‘RED FOOD FESTIVAL’은 새로운 명칭과 함께 레드푸드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며 지역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됐으며 앞으로 세계 최고의 먹거리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아는 만큼 건강해지는 무주군보건의료원 생활백서’

‘건강 더하기’ 책자 제작·배부

무주군이 ‘아는 만큼 건강해지는 무주군보건의료원 생활백서, 건강+ 더하기(이하 건강 더하기)’를 제작해 군청을 비롯한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경로당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건강 더하기’는 군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행한 것으로, 의료 취약계층을 포함한 군민이 알아두면 유익한 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 등을 담았다.

‘모두에게 건강을’ 부분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건강 검진,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 금연클리닉, 혈관튼튼 수요일, 고혈압·당뇨환자 안저검사, 혈압·혈당기 무료 대여, 감염 예방수칙, 찜찜가무시증 예방수칙, 예방접종,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어르신께 활력을’ 부분에는 무료 결핵 검사와 경로당 노인건강교실, 노인 틀니 지원, 치매 검사와 진단, 치매 예방·관리 프로그램, 치매안심마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마음에 행복을’ 부분에는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알코올중독예방, 정신질환 관리, 자살 위험 신호, 생명지킴이 관련 내용이, ‘아이에게 희망을’ 부분에서는 임신축하금과 첫만남이용권, 산모 교통비 지원, 영양플러스,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등 알아두면 득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외 무주군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지역 내 의원과 약국, 폐의약품 분리배출, 국가건강검진 내용 등도 담겨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의회, 새해 첫 의정활동 시작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지난 2일 총현답 참배와 제주항공 희생자 추모로 을사년 새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군의회는 독립유공탑과 총현답을 찾아 헌화와 분향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진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공연장에 마련된 제주

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동창욱 의장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의회는 16일부터 22일까지 제296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등을 보고 받음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소득작목 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무주군이 2025년도 소득작목 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사업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기술 등을 농가에 보급하고 그 효과를 실제 현장에서 검증·확산하는 사업으로, 무주군은 올해 국비 3억 6천만 원 포함, 총 15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과수와 채소, 스마트팜·화훼 분야에서 총 19개 사업(870ha)을 추진한다.

과수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사과원 저온 피해경감 통로형 온풍 공급 기술 보급과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광막 지원 등이 있으며 채소 분야에서는 △수출형 종일성 딸기(여름딸기) 안정생산 병행 기술 시범을 비롯한 △고랭지 비기립 얹재형 안정생산 종합기술 시범, △고랭지 흑미수확 특단지 육성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팜·화훼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 보급 등 소득작목 전 분야에 걸쳐 신기술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 차단막 보급 시범사업 등 만 39세 이하 청년 대상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농업 분야 인재 발굴 및 청년농 육성,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 시범사업 신청 자격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무주군 스마트팜 대추토마토 시범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및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오는 17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은 2월까지 현지심사와 농업신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과, 농업인 상담소에서도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농업인구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수와 채소, 스마트팜, 화훼 등 소득작목이 무주농업의 숨은 잠재력이자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올해도 지속 운영

산물 발생 예방 기여·자연순환생명농업 실현

진안군은 2025년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부산물 처리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불법소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산물 발생 예방에 기여하고, 파쇄 영농부산물은 퇴비화해 ‘자연순환생명농업’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으며 신청이 쇄도해 파쇄지원단의 작업량이 폭증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89농가 84.29ha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추진한 파쇄 규모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불법소각에 따른 산물 발생 피해를 95% 줄이고, 미세먼지도 최대 24% 저감한 효과를 봤다고 분석 결과를 발표해 그 효과를 입증했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의 도움을 받



은 진안을 반월리 주민은 “영농부산물은 불태워서 처리해 왔었는데, 이제는 파쇄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깨끗하게 파쇄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2025년에도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농업인들이 미세먼지 저감 및 산물예방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고품질 유용 미생물 무상 공급

진안군은 올해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가에 고품질 유용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군에서 공급하는 미생물 군종은 복합균, 광합성균 등 친환경 미생물 6종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 11월 미생물 배양센터 환경개선 공사 및 별관 배양시스템 도입을 완료해 공급 미생물의 질을 높였다.

미생물 공급 대상은 진안군에 주소를 둔 농축산인, 영농법인·단체뿐만 아니라 생활속 친환경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농 진안군민까지 포함된다.

미생물 공급을 원하는 군민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소지하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를 방문해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배양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농번기(3~10월)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운영한다.

진안군은 지난 2013년부터 농가에 유용 미생물을 공급해오고 있으며 2024년에는 농업 및 축산 전용 미생물 374톤을 공급하는 등 농축산 농가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신청 접수

장수군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25년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정기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주가 1월에 미리 연납할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대상기간(24. 7. 1.~25. 6. 30.)동안 장수군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환경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신청 납부자는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연납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부시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어 정기분(3월, 9월)에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곡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